BARUN

출제자의 눈으로 원서를 자른다

원서 해부 노트

Edible Economics · Chapter 1 ACORN

대상 미추홀외고 원서 강독반
범위 Ha-Joon Chang, Edible Economics — 「Acorn」 (원서 PDF 21~27쪽)
구성 범위 지도 → 유닛별 정밀 해부(6개 유닛) → 실전 변형 모의고사(16문항+서답형) → 파이널

이 챕터는 한 가지를 묻는다 — "한 나라의 경제를 만드는 것은 문화인가, 정책인가."

이 장은 도토리묵 이야기로 시작한다. 도토리는 가난할 때 먹는 음식이지만, 스페인에서는 도토리를 먹인 돼지가 저자가 꼽는 세계 최고의 햄이 된다. 그 햄은 무슬림과 싸우며 세워진 기독교 스페인의 상징이었고, 이야기는 쫓겨난 유대인을 받아들인 오스만 제국과 이슬람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다시 유교 문화가 동아시아의 기적을 만들었다는 통념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한때 게으르다는 말을 듣던 한국인이 시간을 지키는 노동력이 되고, 총저축률이 GDP의 1%도 안 되던 나라가 세계 최고의 가계 저축률을 기록한 까닭이 문화가 아니라 고속 성장과 정책에 있었다고 말한다. 이 노트는 해석을 외우게 하지 않는다. 출제자가 어디를 자를지 네 눈으로 먼저 찾게 만든다.

학교		학년·반		이름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

HOW TO USE

이 노트를 쓰는 법

해석을 외우는 노트가 아니라, 문제가 나올 자리를 찾는 노트입니다.

네 개의 파트, 한 가지 원칙

파트	무엇을 하는가	언제 쓰는가
Part 1 범위 지도	출제 예상 자리표, 문단별 구조도, 대립 구조표, 숫자·고유명사·인물 총정리표	첫 수업 · 시험 전날 재확인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유닛마다 원서 위치 → 기호 표시 자리 → 내용 → 어법 포인트 → 어휘(유의어·반의어) → 한 줄 요약	수업 본체 · 매 유닛 과제
Part 3 실전 변형 모의고사	미추홀외고 유형 순서로 16문항 + 서답형 1문항(100점)	Part 2를 다 끝낸 뒤 시간을 재고 풀기(40분)
Part 4 파이널	핵심 문장 12선 영작, 숫자·고유명사 복원표, 통합 사고 문제(서론(마늘)과 연결)	평가 2~3일 전

원칙 하나 – 원서는 네가 직접 칠한다

- 이 노트에는 원문이 실려 있지 않다. 원서를 옆에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다음, Part 2 표의 자리를 찾아 **기호를 직접 그려 넣는다.**
- 매 유닛 과제: 표를 보기 전에 원서에서 **문제가 나올 자리 3곳**을 먼저 표시하고, 왜 그 자리인지 한 줄로 적어 온다. 수업에서 표와 비교한다.
- 틀린 문제는 "왜 그 오답이 매력적이었는지"까지 적어야 끝난 것이다. 정답 번호만 고치는 복습은 복습이 아니다.

기호 범례

▲ 어법 함정 후보 ● 어휘 반전 후보(반의어 바꿔치기) ★ 빈칸·요약문 후보 ◆ 밑줄 의미·지칭 추론 후보

쪽수는 원서 PDF의 쪽 번호입니다(PDF 쪽 아래에 인쇄된 번호보다 1 큽니다). 단락 번호(¶)는 그 쪽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락만 셉니다. 앞 쪽에서 이어지는 단락의 끝부분은 '○쪽 첫 줄'로 표시합니다. 들여 쓴 인용문과 장 끝의 각주는 단락 수에 넣지 않고 '○쪽 인용' · '○쪽 각주'로 표시합니다. 종이책을 쓰는 경우 단락의 첫 단어로 위치를 맞추세요.

PART 1

범위 지도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무엇을 공부할지가 정해진다.

1-1. 유형별 출제 예상 자리 – 미추홀외고 유형 기준

미추홀외고 영어 지필평가의 유형 순서(주장·요지·제목 → 밑줄 의미 → 지칭 → 내용 일치 → 어법 → 어휘 → 빈칸 → 문장 삽입 → 무관한 문장 → 순서 → 요약문 → 서답형)를 이 챕터에 적용해, 각 유형이 어디서 나올지 예측했다. Part 3 모의고사는 이 순서를 따른다.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3	주장·요지·제목	문화의 원재료로 무엇을 만드느냐는 선택 · 정책의 문제다(25쪽 ¶1~¶2) / 한국의 저축은 근검 문화가 아니라 성장과 대출 규제의 결과다(26쪽 ¶1~¶3) / 부정적 · 긍정적 고정관념 모두 진짜 원인을 가린다(24쪽 ¶1~¶2) / 문화는 정책보다 훨씬 힘이 약하다(26쪽 ¶5)
4~5	**밑줄 함축 의미**	no delicacy / Unless you feed it to Ibérico pigs / a symbol of their Christian identity / with open arms / the Catholic monarch's loss was his gain / don't hold up to scrutiny / the ink of the scholar / no joke either / But which culture doesn't? / time is no object / bought at the cost of conformism / cultural raw material / an army of highly educated unemployeds / supposedly 'spendthrift'
6	지칭 추론	they · their가 거짓 개종자(conversos)와 종교재판관(inquisitors) 사이를 오가는 22쪽 ¶1~¶2 / it(Acorn gives it = jamón, 21쪽 ¶4) · It(became important = ham, 22쪽 첫 줄) / his gain = Beyazit II(22쪽 ¶4) / this(23쪽 ¶2 · 26쪽 첫 줄) · This is wrong(26쪽 ¶1)
7~8	내용 일치·불일치	중세 무슬림 세계의 수학 · 과학 · 법학 · 바그다드(10~11세기) · 한국과 아프리카까지의 교역 · 19세기 유럽의 판사(23쪽 ¶1) / 헌팅턴 · 1961년 93달러 vs 190달러(24쪽 ¶3) / 1391 · 1478 · 1492(22쪽) / 문해율 22 · 53 · 52 · 38%(25쪽 ¶4) / 저축률(26쪽)
9~10	**어법**	be known to have p.p. · however much + S + V · no + 명사 · 명사 + 과거분사 독립 구문 · 단독 Unless절 · is made … and is called 병렬 · judge + O + to be · 계속적 who + 과거완료 · be made to V · which some believe is · It is said that · be supposed to have p.p. · were allowed … and given · Hence + 명사구 · had + S + not p.p. 도치 · not least because · 계속적 which + 단수 동사 · 복수 주어 + were · in that · attribute A to B · 간접의문문 what + S + V · look down upon 수동 · 전치사 + 관계대명사 · what절 주어 · despite + 의미상 주어 + having been p.p. · find + O + to be · allow + O + to V · would have p.p. + unless · so ~ that · much less + 원급
11	어휘(문맥상 부적절)	choice↔inferior · makeshift↔permanent · unyielding↔flexible · genuine↔fake · expel↔admit · tolerant↔intolerant · autonomy↔dependence · lucrative↔unprofitable · compatible↔incompatible · objectionable↔acceptable · plausible↔implausible · reluctant↔eager · plummet↔soar · spendthrift↔thrifty
12	빈칸 추론	the importance of learning(23쪽 첫 줄) / a matter of choice – and thus policy action(25쪽 ¶1) / social mobility and thus the return to education(25쪽 ¶4) / consumption could not keep pace with … income(26쪽 ¶3) / much less powerful than policies(26쪽 ¶5)
13	문장 삽입	정책이 만든 노동력과 교육열(25쪽 ¶3~¶4): 시간 엄수 노동력의 부재 → 학교 · 이념 캠페인 · 노동법 → 교육 투자의 진짜 까닭(토지 개혁) → 수백 년의 국가 이념 → 1945년 문해율 22% → 타이 · 필리핀 · 말레이시아

번호	유형	이번 범위에서 예상되는 출제 자리
14	무관한 문장	도토리 음식과 하몽(21쪽 ¶1~¶4)에 같은 장의 다른 대목(1961년 한국 · 가나의 1인당 소득, 24쪽 ¶3) 끼워 넣기
15	순서 배열	햄과 스페인의 정체성(21쪽 ¶5 ~ 22쪽 첫 줄) → 1492년 레콩키스타 · 유대인 추방 → 오스만 제국으로 간 유대인 · 로드릭(22쪽 ¶3)
16	요약문 완성	규제를 풀자 곤두박질친 가계 저축 · 칠레 · 멕시코와의 비교(26쪽 ¶4) + 문화는 정책보다 힘이 약하다(26쪽 ¶5)
서답형	QUIZ(알파벳 완성)	연도 · 인물 · 숫자 · True/False 7문항 → 답의 알파벳을 이으면 한 단어. 부분 점수 없음

서답형 전략 – 글자를 이으면 반드시 '사전에 있는 단어'가 되어야 한다

- 이상한 글자 조합이 나오면 하나는 틀린 것이다.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면 된다. **완성된 단어가 자기 검증 장치다.**
- 연도가 많다 – 1391(강제 개종) · 1478(종교재판소) · 1492(레콩키스타 · 유대인 추방) · 1912(비어트리스 웹) · 1915(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 · 1945(문해율 22%) · 1961(한국 93달러 · 가나 190달러). 비율도 많다(문해율 22 · 53 · 52 · 38%, 저축률 22 · 39 · 3 · 1 · 3~5 · 5 · 10.5 · 11.4%). 22%는 두 번 나온다(1945년 문해율 · 1990년대 초 가계 저축률). 인물도 많다(바예지드 2세 · 대니 로드릭 · 무함마드 · 헌팅턴 · 비어트리스 웹 · 공자 · 레다 셰리프). 부분 점수가 없으므로 1-4의 표를 '통째로' 외운다.
- True/False 문항은 원서의 한 단어를 뒤집는다(poorer ↔ richer than Ghana, higher ↔ lower taxes, Muslims first ↔ Jews first, more ↔ less advanced than Europe, rose ↔ fell). '그렇다고들 한다'(is supposed to · supposedly · It is said · some believe)를 사실로 바꾼 선지도 조심한다.

1-2. 구조도 – 「Acorn」 (21~26쪽)

논증형(도토리 음식 → 하몽과 스페인의 정체성 → 유대인 박해와 추방 → 관용의 오스만 제국 → 이슬람 고정관념 반박 → 카스트 없는 이슬람 → 부정적 · 긍정적 고정관념 → 유교 고정관념 해체 → 정책이 만든 노동력 · 교육 · 인력 · 저축 → 결론). 핵심 축은 **문화 vs 정책**, 그리고 **부정적 고정관념(이슬람) vs 긍정적 고정관념(유교)**.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21 ¶1	도입	도토리 = 썩 좋은 음식이 아님 / 아메리카 원주민(캘리포니아) · 일본인 · 더 나은 탄수화물이 없을 때 · 북부 이탈리아의 밤 가루
21 ¶2~¶3	도토리묵	묵(채소 젤리) · 양념간장 · 오이와 당근 / 별미는 아님 · 산 위 노점 · 동네 술집
21 ¶4 + 27 각주 i	하몽	이베리코(파타 네그라) 돼지 · 데 베요타 = 마지막 단계에 도토리만 / 저자가 꼽은 세계 최고의 햄 · 높은 값 / bellota ← 아랍어 balewt
21 ¶5~22 첫 줄	정체성	「하몽 하몽」 / 무슬림과 싸우며 세운 스페인 · 돼지고기 = 기독교도 정체성의 상징
22 ¶1~¶2	박해	1391년 강제 개종 · 공개적으로 돼지고기 / 1478년 종교재판소 · 마라노 · 토요일 굴뚝 · 냄새(전언)
22 ¶3	추방	1492년 1월 레콩키스타 · 무슬림 추방 → 유대인 추방 · 포르투갈 / 오스만 제국으로 · 대니 로드릭(로드리게스)
22 ¶4~¶5	관용	오스만 = 훨씬 관대 · 바예지드 2세(전언) · 가톨릭 군주의 손실 = 나의 이득 / 높은 세금 · 종교 자유 · 자치 · 모든 직업 / 불관용은 이슬람의 필연이 아님
22 ¶6~23 첫 줄	호전성 반박	근본주의자가 부추긴 시각 · 지하드의 본뜻 / 학문 강조 · 학자의 잉크 / 번역 없이는 르네상스 불가능(저자의 판단)

위치	역할	한 줄 요약(순서 배열용)
23 ¶1	내세 지향 반박	중세 수학 · 과학 · 법학 · 바그다드(10~11세기) · 아랍어 기원 낱말 / 한국 · 아프리카와 교역 · 상인의 높은 지위 · 계약법 · 훈련받은 판사
23 ¶2	카스트	무슬림 문화 = 카스트 없음 / 힌두 카스트 · 유교 신분제 · 농민의 아들만 과거 · 장인과 상인 / 엔지니어와 기업가의 낮은 지위
23 ¶3~24 첫 줄	결론 1	무슬림 문화에 본래 반발전적인 것은 없음 · 학문 · 과학 · 위계 없음 · 상업 · 법치 · 관용 / 말레이시아 · 두바이
24 ¶1~¶2	고정관념	무지 · 악의 → 부정적 고정관념 · 진짜 원인을 놓침 / 긍정적 고정관념도 현실을 왜곡
24 ¶3	헌팅턴	유교 = 근면 · 근검 · 교육(그렇다고들 함) · 어느 문화가 안 그런가 / 1961년 한국 93달러 · 가나 190달러 · "문화가 중요하다" = 긍정적 고정관념
24 ¶4	게으름	1915년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 · 1912년 비어트리스 웹 ·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창시자 가운데 한 명
24 ¶5~25 첫 줄	교육 · 규율	과거용 정치 철학과 시 · 실용적 일 천시 / 규율의 대가 = 순응주의 · 독창성 부족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 중
25 ¶1~¶2	선택 · 정책	이슬람과 유교의 두 얼굴 · 문화의 여러 면 / 문화의 원재료 = 선택 → 정책 행동 · 올바른 정책은 어느 문화에서든
25 ¶3~26 첫 줄	정책의 예	시간 엄수 노동력(학교 · 캠페인 · 노동법) / 토지 개혁 → 교육 투자 · 문해율 22% / 과학 · 공학 인력 · 산업화로 일자리
26 ¶1~¶4	저축	22% · 39% · '근검 문화'는 틀림 / 1960년 1% 미만 / 고속 성장 + 대출 규제 / 규제 폐지 → 3~5% · 5% < 칠레 · 멕시코
26 ¶5	결론 2	문화의 영향은 부정할 수 없지만 단순한 고정관념은 거부 · 여러 면 · 늘 변함 / 문화는 정책보다 훨씬 힘이 약하다

1-3. 대립 구조표 – 선지는 이 축을 뒤집어서 만들어진다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경제 성과의 열쇠	문화 – 유교의 근면 · 근검 · 교육(헌팅턴)	정책 – 올바른 경제 · 사회 정책은 어느 문화에서든 발전을 북돋움
도토리	가난할 때 먹는 음식 · 도토리묵은 별미가 아님	이베리코 돼지에게 먹이면 세계 최고의 햄(저자의 판단)
1492년 이후의 유대인	기독교 스페인 · 포르투갈 – 추방	오스만 제국 – 반겼다고 함 · 종교 자유 · 자치(세금은 더 많이)
이슬람의 이미지	불관용 · 호전적 · 내세 지향(부정적 고정관념)	관용 · 학문 · 과학 · 상업 · 법치(이것도 실재하는 얼굴)
지하드	이교도에 맞선 종교 전쟁(흔한 오해)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노력(본래 뜻)
신분 제도	힌두교 · 유교 – 출생에 따라 직업 제한 · 사회적 이동 제한	무슬림 문화 – 카스트 없음
고정관념의 방향	부정적 – 낯선 문화의 불편한 점만 골라 문제의 탓으로	긍정적 – 좋은 점만 부풀림(헌팅턴) · 둘 다 현실 왜곡
1961년 한국과 가나	문화가 갈랐다(헌팅턴)	한국이 더 가난했음(93달러 vs 190달러) · 저자 = 긍정적 고정관념의 예

축	이쪽	저쪽(글이 지지하는 쪽)
유교와 근면	근면을 장려한다고들 함	과거 서양인들은 게으르다고 묘사(1915 · 1912)
유교의 교육 · 규율	교육열 · 규율(헌팅턴의 칭찬)	과거용 정치 철학과 시 · 순응주의라는 대가
교육열과 과학 인력	공자의 학식 강조 · 유교 문화	토지 개혁이 높인 사회적 이동 / 정원 제한 · 병역 단축 · 산업화
높은 가계 저축률	근검이라는 문화적 특성(통념)	고속 성장 + 대출 규제 → 규제를 풀자 3~5%로 추락

1-4. 숫자 · 고유명사 · 인물 총정리표 – 서답형과 내용 일치는 여기서 나온다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dotori mook	도토리(dotori)로 만든 채소 젤리(mook) · 양념간장 = 간장 · 참기름 · 양념(다진 파 · 고춧가루 · 깨) · 별미는 아님(no delicacy)
도토리를 먹은 사람들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특히 **캘리포니아**) · 일부 일본인 – '알려져 있다'(are known to) / 가난한 북부 이탈리아인 = 파스타용 밀가루에 **밤 가루**
jamón Ibérico de bellota	이베리코 = 파타 네그라(**검은 발굽**) 돼지의 다리 · 최상품 = 놓아기른 돼지가 마지막 단계에 참나무 숲에서 도토리만 · bellota = 스페인어로 도토리
27쪽 각주 i	bellota ← 참나무를 뜻하는 아랍어 **balewt** · 스페인 문화에 끼친 무슬림의 영향 · 알려 준 사람 = **Reda Cherif**
prosciutto di Parma	달콤한 멜론과 함께 저자가 좋아함 – 그래도 세계 최고는 하몽 이베리코(저자의 판단) · 높은 값 = 동의를 '시사'(suggests)
Jamón Jamón	'Ham, Ham' · **Penelope Cruz**의 데뷔작 · **Javier Bardem**도 출연
1391	성난 기독교도 군중 · 죽음의 위협 속 강제 개종 · 개종자는 사람들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함
conversos / marranos	콘베르소 = 개종한 유대인(일부는 몰래 원래 종교를 지킴) / 마라노 = 거짓 개종자 · 돼지를 뜻하는 아랍어에서 왔다고 **믿는 이들도 있다**
1478	스페인 종교재판소 설립 · 토요일 굴뚝 감시 · 골목의 냄새 확인은 **전언**(It is said)
1492	**1월** 레콩키스타 완성 · 무슬림 추방 → **같은 해 나중에** 칙령으로 유대인 추방 · 포르투갈도 따름
Dani Rodrik	튀르키예의 이름난 경제학자 · 오스만 제국으로 간 유대인의 후손 · 원래 성 **Rodriguez**(로드릭이 저자에게 말함)
Beyazit II	오스만 술탄 · 유대인을 두 팔 벌려 반겼다**고 한다**(is supposed to) · "가톨릭 군주의 손실은 나의 이득"(apparently)
오스만의 유대인	세금은 **더 많이**(모든 비무슬림처럼) · 종교의 자유 · 공동체 자치 · 궁정 조언자 · 외교관 · 상인 · 제조업자 · 짐꾼 · 석공
jihad / Muhammad	jihad의 본뜻 =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노력 / 무함마드 = "학자의 잉크는 순교자의 피보다 성스럽다" · 그 자신이 상인
중세 무슬림 세계	수학 · 과학 · 법학에서 유럽보다 앞섬 · **바그다드**(10~11세기) · al = 아랍어 정관사 · 동쪽 **한국** · 서쪽 아프리카와 교역 · 유럽 대부분 나라는 **19세기**까지 법을 배우지 않아도 판사
caste	힌두교(남아시아) · 유교(동아시아) / 과거 = 농민의 **아들만** · 장인과 상인(노예 바로 위)의 아들은 응시 불가 · 엔지니어 = 지나치게 배운 장인, 기업가 = 오늘날의 상인

항목	내용(바꿔치기 주의점)
Samuel Huntington	노련한 미국 정치학자 · 『The Clash of Civilizations』 · "요컨대 문화가 중요하다" = 긍정적 고정관념의 완벽한 예(저자) / 말레이시아 · 두바이 = 이슬람이 경제 발전과 함께 갈 수 있다는 예(24쪽 첫 줄)
1961 한국 vs 가나	1960년대 초 비슷한 수준 · 1961년 1인당 소득 한국 **93달러** · 가나 **190달러**(한국이 훨씬 가난)
1915 / 1912	1915년 =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공장을 둘러본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 / 1912년 = 일본과 한국을 둘러본 **Beatrice Webb**(영국 사회학자 · 사회 개혁가 · 페이비언 사회주의 창시자 가운데 한 명) · 한국인 '1,200만'
문해율	1945년 한국 **22%** / 타이 53%(1947) · 필리핀 52%(1948) · 말레이시아 38%(1947)
1960~70년대 한국	과학 · 공학 기피 → 인문 · 사회과학 정원과 예산 제한 · 우수 과학 · 공학 졸업생 병역 단축 · 공공 정책으로 산업화
가계 저축률	한국 1990년대 초 **22%**(당시 세계 최고) · 중국 2010년 **39%** / 1990년대 말 규제 폐지 → **3~5%** · 2005~14년 평균 **5%** < 칠레 **10.5%** · 멕시코 **11.4%**
1960년대 초 총저축률	GDP의 **3%** 미만 · 1960년에는 **1%**도 안 됨 · 늘어난 까닭 = 고속 성장(주된 까닭) + 주택 담보 · 소비자 대출 제한
27쪽 각주 ii	유교 = 종교가 아닌 정치 · 사회 철학 · **Kongzi**(Kongfuzi → 라틴어화 Confucius) · 소크라테스가 태어날 무렵(기원전 5세기 초) 사망

PART 2

유닛별 정밀 해부

Edible Economics · 「Acorn」 (원서 PDF 21~26쪽) · 6개 유닛

▲ 어법 함정 ● 어휘 반전 ★ 빈칸·요약 ◆ 밑줄 의미·지칭

1-1 도토리, 별미가 아닌 음식과 세계 최고의 햄 21쪽 ¶1~¶4 + 27쪽 각주 i

원문 위치 원서 21쪽 ¶1~¶4 + 27쪽 각주 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1 첫 문장	is not exactly a choice food	도입 — 도토리는 썩 좋은 음식이 아니다(choice = 고급의)
▲	¶1 둘째 문장	are known to have eaten it	be known to + 완료부정사(앞선 시점)
▲	¶1 셋째 문장	couldn't afford or locate finer sources of carbohydrate	두 동사가 목적어 하나를 함께 씀
▲	¶1 셋째 문장	just as poor northern Italians used to bulk up	just as(꼭 ~처럼) + used to 원형
★	¶2 첫 문장	by making a vegetable jelly (mook) out of them	내용 일치 — 묵 = 채소 젤리
▲	¶2 둘째 문장	the nutty and slightly bitter undertone of acorn brought out by	명사 + 과거분사 독립 구문
★	¶2 둘째 문장	soy sauce (ganjang), sesame oil and seasoning ingredients (yangnyum)	내용 일치 — 양념간장의 재료
▲	¶3 첫 문장	However much I like dotori mook, I'll admit that	however much + S + V(양보)
◆	¶3 첫 문장	it's no delicacy	밑줄 의미: 결코 별미가 아니다(no + 명사)
◆	¶4 첫 문장	Unless you feed it to Ibérico pigs.	밑줄 의미: 앞 문장의 예외 — 무대를 스페인으로
★	¶4 셋째 문장	jamón Ibérico de bellota (bellota means acorn in Spanish)	서답형 · 내용 일치 후보
▲	¶4 셋째 문장	is made with free-range pata negra pigs that only eat … and is thus called	동사 is made · is called 병렬
▲	¶4 다섯째 문장	Despite my fondness for …, I judge jamón Ibérico to be	despite + 명사 / judge + O + to be
●	¶4 여섯째 문장	unyielding on the topic of food	어휘 반전: unyielding ↔ flexible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4 일곱째 문장	outside Italy, no doubt	밑줄 의미: 이탈리아 친구들을 향한 농담
★	27쪽 각주 i	the Arab word for the oak tree, balewt	내용 일치 — 스페인 문화에 끼친 무슬림의 영향

내용

참나무의 열매인 도토리는 썩 좋은 음식이라고 하기 어렵다.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 특히 캘리포니아의 원주민과 일부 일본인이 도토리를 먹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들은 더 나은 탄수화물 공급원을 살 형편이 못 되거나 구할 수 없을 때 도토리를 먹었다. 가난한 북부 이탈리아 사람들이 파스타를 만들 때 밀가루에 밤 가루를 섞어 양을 늘리곤 했던 것과 마찬가지다. 한국인은 도토리(dotori)로 채소 젤리인 묵(mook)을 만들어 아주 많이 먹는다. 저자는 도토리묵을 좋아한다. 고소하고 살짝 쌉싸름한 도토리의 맛을 양념간장의 짭짤하고 톡 쏘는 맛이 끌어내기 때문이다. 양념간장은 보통 간장과 참기름에 다진 파 · 고춧가루 · 깨 같은 양념을 넣어 만든다. 오이와 당근을 썰어 넣으면 훌륭한 샐러드 한 끼가 된다. 그러나 저자는 도토리묵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것이 별미는 아니라고 인정한다. 힘든 오전 산행 뒤 산 위의 임시 노점에서, 또는 싸게 한잔하는 저녁에 동네 술집에서 먹는 음식이다. 도토리로 별미를 만들기는 꽤 어렵다. 이베리코 돼지, 곧 파타 네그라(검은 발굽) 돼지에게 먹인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이 돼지의 다리로 만든 햄이 하몽 이베리코(jamón Ibérico)다. 그 가운데 최상품은 놓아기르면서 삶의 마지막 단계에 참나무 숲에서 도토리만 먹은 파타 네그라 돼지로 만들며, 그래서 하몽 이베리코 데 베요타라고 부른다(bellota는 스페인어로 도토리). 도토리는 이 햄에 다른 무엇도 따라올 수 없는 깊고 고소한 맛을 준다. 저자는 달콤한 멜론을 곁들인 파르마 프로슈토를 좋아하지만 하몽 이베리코를 세계 최고의 햄으로 꼽는다. 음식 이야기에서는 물러서지 않는 이탈리아 친구들이 이를 용서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이 햄이 받는 높은 값은 많은 사람이(물론 이탈리아 밖의 사람들이겠지만) 자기와 같은 생각임을 시사한다고 덧붙인다. 각주에 따르면 bellota라는 말도 참나무를 뜻하는 아랍어 balewt에서 왔으며, 이는 스페인 문화에 끼친 무슬림의 영향을 다시 한번 보여 준다. 저자는 이것을 레다 셰리프에게 배웠다.

어법

- **Some Native Americans, especially in California, and some Japanese are known to have eaten it** : be known to have p.p. = ~했다고 알려져 있다(완료부정사: 알려진 지금보다 먹은 일이 앞섬). 주어 = Some Native Americans와 some Japanese(복수 → are). especially in California = 삽입.
- **They ate acorn when they couldn't afford or locate finer sources of carbohydrate – just as poor northern Italians used to bulk up their wheat flour with chestnut flour for pasta** : afford와 locate가 목적어 finer sources를 함께 씀. just as = 꼭 ~처럼. used to + 원형 = 과거의 습관. bulk up A with B = B를 섞어 A의 양을 늘리다.
- **I love dotori mook, the nutty and slightly bitter undertone of acorn brought out by the salty and sharp taste of yangnyum ganjang** : 콤마 뒤 = 명사(the nutty and slightly bitter undertone of acorn) + 과거분사(brought out by ~)로 된 독립분사구문(being 생략; 주절의 주어 I와 달라 의미상 주어를 밝혀 씀). 도토리묵을 좋아하는 까닭(맛의 어울림)을 덧붙인다.
- **However much I like dotori mook, I'll admit that it's no delicacy** : however much + S + V = 아무리 ~해도(no matter how much, 양보). no + 명사 = 결코 ~이 아닌(not a보다 강한 부정).
- **It is pretty hard to come up with a delicacy based on acorn. Unless you feed it to Ibérico pigs, also known as pata negra (black hoof) pigs.** : 가주어 it + 진주어 to come up with. 둘째 문장은 앞 문장에 붙을 조건절(unless = ~하지 않는 한)을 따로 떼어 낸 문장 조각으로, 반전을 돋보이게 한다. also known as = 과거분사구 후치. feed A to B = A를 B에게 먹이다.
- **The best quality jamón Ibérico is made with free-range pata negra pigs that only eat acorns in oak forests in the last stages of their lives and is thus called jamón Ibérico de bellota** : 주어 jamón Ibérico에 동사 is made와 is called가 and로 병렬(두 번째 is의 주어도 jamón).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pigs → 복수 eat). thus = 그래서.

- **Despite my fondness for prosciutto di Parma with sweet melon, I judge jamón Ibérico to be the best ham in the world** : despite + 명사(전치사; 뒤에 절이 오면 although). judge + O + to be 보어 = O를 ~라고 판단하다.
- **The high price it commands suggests that many people – outside Italy, no doubt – agree with me** : price (that) it commands =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주어 price(단수) → suggests. suggest that = ~임을 시사하다(제안의 뜻이 아니므로 that절은 직설법 agre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hoice (a.)	고급의, 엄선된	select	inferior
afford	~할 형편이 되다	manage	—
locate	찾아내다	find	lose
bulk up	양을 늘리다	pad out	reduce
undertone	은은한 맛, 바탕의 기운	hint	—
bring out	끌어내다, 돋보이게 하다	enhance	mask
delicacy	별미, 진미	treat	—
makeshift	임시변통의	temporary	permanent
tavern	선술집	pub	—
come up with	생각해 내다	devise	—
free-range	놓아기른	pasture-raised	caged
fondness	좋아함	affection	dislike
unyielding	굽히지 않는	stubborn	flexible
command (v.)	(값을) 받다	fetch	—

내용 일치 도토리를 먹은 사람들 =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특히 캘리포니아)과 일부 일본인('알려져 있다') · 까닭 = 더 나은 탄수화물을 살 형편이 못 되거나 구할 수 없을 때 · 비유 = 가난한 북부 이탈리아인의 밤 가루 · 묵 = 채소 젤리 · 양념간장 = 간장 + 참기름 + 양념 · 도토리묵 = 별미가 아님(산 위 노점 · 동네 술집) · 하몽 이베리코 = 이베리코(파타 네그라) 돼지의 다리 · 데베요타 = 놓아기른 돼지가 마지막 단계에 도토리만 먹음 · 세계 최고의 햄 = 저자의 판단 · 높은 값 = 많은 사람의 동의를 '시사' · bellota의 어원 = 아랍어 balewt(27쪽 각주 i). **밑줄 의미** it's no delicacy = 저자가 좋아해도 귀한 음식은 아니라는 인정 / Unless you feed it to Ibérico pigs = 도토리로 별미를 만들기 어렵다는 앞 문장의 예외 – 무대를 한국에서 스페인으로 옮기는 전환 / outside Italy, no doubt = 자기 나라 햄을 굽히지 않을 이탈리아 친구들을 향한 농담 / 21쪽 ¶4 it(Acorn gives it) = jamón Ibérico de bellota.

> **한 줄 요약** 도토리는 가난할 때 먹는 음식이고 한국의 도토리묵도 별미는 아니지만, 도토리를 먹인 이베리코 돼지로 만든 하몽 이베리코 데 베요타는 저자가 세계 최고로 꼽는 햄이 된다.

1-2 돼지고기와 정체성, 개종과 추방 21쪽 ¶5 ~ 22쪽 ¶3

원문 위치 원서 21쪽 ¶5 ~ 22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1쪽 ¶5 첫 문장	where else could have produced a movie called 'Ham, Ham'	밑줄 의미: 수사의문문 — 스페인밖에 없다
★	21쪽 ¶5 첫 문장	Penelope Cruz's debut film, Jamón Jamón, which also features Javier Bardem	인물 — 내용 일치 후보
▲	22쪽 첫 줄(21쪽 ¶5 둘째 문장)	by fighting the Muslims, who had once controlled	by -ing / 계속적 who + 과거완료
▲	22쪽 첫 줄(21쪽 ¶5 셋째 문장)	One thing that distinguished the Christians from the Muslims was eating pork	단수 주어 + 동명사 보어
◆	22쪽 첫 줄(21쪽 ¶5 셋째 문장)	pork became a symbol of their Christian identity	밑줄 의미 · 순서 배열의 고리
★	22쪽 ¶1 둘째 문장	In 1391, many Jews, threatened by angry Christian mobs, were forced to convert	숫자 — 서답형 1순위
▲	22쪽 ¶1 셋째 문장	Converted Jews were made to eat pork in public, as a demonstration that	be made to V / 동격 that
◆	22쪽 ¶1 넷째 문장	Some conversos secretly practised their original religion	지칭: their = conversos
★	22쪽 ¶2 첫 문장	When the Spanish Inquisition was established in 1478	숫자 — 서답형 후보
▲	22쪽 ¶2 첫 문장	marranos, which some believe is derived from the Arabic word meaning pig	관계대명사 + 삽입절 / 전언
▲	22쪽 ¶2 셋째 문장	the house would have no smoke coming out of the chimney	have + O + -ing
★	22쪽 ¶2 넷째 문장	It is said that the inquisitors also walked around the alleys	전언 — 단정 선지 함정
★	22쪽 ¶3 첫~셋째 문장	In January 1492 … Later in the year, a royal decree expelled the Jews	숫자 · 순서(무슬림 → 유대인)
★	22쪽 ¶3 다섯째 문장	fled to the Ottoman Empire, then the centre of the Muslim world	내용 일치 — 피신처
◆	22쪽 ¶3 여섯째 문장	the original family name, he told me, was Rodriguez	지칭: he = Dani Rodrik

내용

햄은 스페인 문화의 한가운데에 있다. 'Ham, Ham'이라는 영화를 만든 나라가 스페인 말고 또 어디 있겠는가. 페넬로페 크루스의 데뷔작으로 하비에르 바르뎀도 나오는 「하몽 하몽(Jamón Jamón)」이다. 햄이 중요해진 것은 한때 이베리아반도 대부분을 지배했던 무슬림과 싸우며 기독교도가 스페인을 세웠을 때였다. 기독교도와 무슬림을 가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돼지고기를 먹느냐였고, 그래서 돼지고기는 기독교도라는 정체성의 상징이 되었다. 스페인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던 또 다른 사람들, 곧 유대인도 기독교 세력이 다시 일어서는 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1391년 성난 기독교도 군중에게 위협받은 많은 유대인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야 했다. 개종한 유대인은 개종이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 사람들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했다. 콘베르소(개종자) 가운데 일부는 몰래 원래 종교를 지켰다. 돼지고기와 조개류를 요리하지 않고 유제품과 고기를 섞지 않았으며, 의례와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다른 많은 관습도 이어 갔다. 1478년 스페인 종교재판소가 세워지자, 그 목표 가운데 하나는 거짓으로 개종한 유대인을 잡아내는 것이 되었다. 이들을 마라노(marranos)라고 불렀는데, 이 말이 돼지를 뜻하는 아랍어에서 왔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흔히 쓰던 방법은 토요일에 의심 가는 집의 굴뚝을 지켜보는 것이었다. 그 집 사람들이 여전히 유대교의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면 굴뚝에서 연기가 나지 않을 것이었다. 계율을 지키는 유대인은 그날 요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종교재판관들이 토요일마다 골목을 돌며 음식 냄새가 나지 않는 집을 가려냈다는 말도 전한다. 1492년 1월 레콩키스타가 완성되었다. 기독교도는 무슬림을 이베리아반도에서 몰아냈다. 같은 해 나중에는 왕의 칙령이 이제 기독교 땅이 된 그곳에서 유대인을 쫓아냈고, 포르투갈도 스페인의 본을 따랐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쫓겨난 많은 유대인은 당시 무슬림 세계의 중심이던 오스만 제국으로 피했다. 튀르키예의 이름난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은 그런 사람 가운데 한 명의 후손이다. 로드릭이 저자에게 말해 준 바로는, 원래 성은 전형적인 이베리아 유대인의 이름인 로드리게스였다.

어법

- **Ham is at the heart of Spanish culture – where else could have produced a movie called 'Ham, Ham'** : 대시 뒤 = 수사의문문(답: 스페인밖에 없다). could have p.p. = ~할 수 있었겠는가(과거의 가능성). called = 과거분사 후치 수식.
- **It became important when the Christians established Spain by fighting the Muslims, who had once controlled most of the Iberian Peninsula** : It = ham. by -ing = ~함으로써. who = 계속적 용법(the Muslims를 보충). had controlled = 과거완료(기독교도가 스페인을 세우기 전의 일).
- **One thing that distinguished the Christians from the Muslims was eating pork; thus pork became a symbol of their Christian identity** : 주어 One thing(단수) + 관계절 → was. 보어 = 동명사 eating pork. distinguish A from B = A를 B와 구별하다. 세미콜론 + thus = 그래서(결과).
- **In 1391, many Jews, threatened by angry Christian mobs, were forced to convert to Christianity on threat of death** : 주어 many Jews와 동사 were forced 사이에 과거분사구 threatened by ~가 삽입. be forced to V = 어쩔 수 없이 ~하다. on threat of = ~의 위협 아래.
- **Converted Jews were made to eat pork in public, as a demonstration that their conversion was genuine** : 사역동사 make의 수동형: 능동 make + O + 원형이 수동이 되면 be made to V(to가 살아남는다). 변형 → were made eat는 오답. demonstration that = 동격 that절.
- **catching Jewish pseudo-converts (known as marranos, which some believe is derived from the Arabic word meaning pig)** : which = is derived의 주어인 주격 관계대명사, some believe = 삽입절(~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 전언). 변형 → which some believe it is derived는 오답. meaning pig = 현재분사 후치.
- **If the residents of the house were still observing the Jewish Sabbath, the house would have no smoke coming out of the chimney** : 과거의 조건(if + 과거진행) + would = 그렇다면 ~일 것이었다(과거에서 본 결과). have + O + -ing = O가 ~하는 상태이다. observe = (계율을) 지키다.
- **It is said that the inquisitors also walked around the alleys on Saturdays identifying houses without cooking smells** : It is said that = ~라고 한다(전언 — 사실 단정이 아님). identifying = 동시 동작의 분사구문.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debut (n.)	첫 작품, 데뷔	first appearance	—
establish	세우다	found	abolish
distinguish A from B	A를 B와 구별하다	differentiate	confuse
identity	정체성	selfhood	—
resurgence	부활, 재기	revival	decline
mob (n.)	군중, 폭도	crowd	—
genuine	진짜의	sincere	fake
pseudo-convert	거짓 개종자	false convert	true believer
integral	빠질 수 없는	essential	peripheral
observe (a rule)	(계율을) 지키다	keep	violate
inquisitor	종교재판관	interrogator	—
decree (n.)	칙령	edict	—
expel	쫓아내다	banish	admit
descendant	후손	offspring	ancestor

내용 일치 'Ham, Ham' = 페넬로페 크루스의 데뷔작 「하몽 하몽」(하비에르 바르뎀 출연) · 햄이 중요해진 때 = 기독교도가 무슬림과 싸우며 스페인을 세울 때 · 무슬림 = 한때 이베리아반도 대부분 지배 · 돼지고기 = 기독교도 정체성의 상징 · 1391년 = 강제 개종 · 개종자는 사람들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함 · 1478년 = 종교재판소 설립 · marranos가 돼지를 뜻하는 아랍어에서 왔다 = 일부의 믿음 · 골목을 돌며 냄새를 확인 = '전해지는 말'(It is said) · 1492년 1월 = 레콩키스타 완성 → 무슬림 추방 → 같은 해 나중에 유대인 추방 → 포르투갈도 따름 · 피신처 = 오스만 제국(당시 무슬림 세계의 중심) · 대니 로드릭 = 후손, 원래 성 로드리게스(로드릭 본인이 저자에게 말함). **지칭** 22쪽 첫 줄 It(became important) = ham / their Christian identity = 기독교도의 / 22쪽 ¶1 their conversion = 개종한 유대인의 / their original religion = conversos의 / 22쪽 ¶2 its goals = 종교재판소의 / that day = 토요일(안식일) / 22쪽 ¶3 those people = 오스만 제국으로 피한 유대인 / he told me = Dani Rodrik이 저자에게.

> **한 줄 요약** 돼지고기가 기독교 스페인의 정체성이 되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은 강제 개종과 종교재판을 겪었고, 1492년 무슬림에 이어 추방되자 많은 이가 오스만 제국으로 피했다.

1-3 관용의 오스만 제국, 학문과 상업의 이슬람 22쪽 ¶4 ~ 23쪽 ¶1

원문 위치 원서 22쪽 ¶4 ~ 23쪽 ¶1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2쪽 ¶4 첫 문장	it seems strange that persecuted Jews would flee to a Muslim country	가주어 it + that절 / would
★	22쪽 ¶4 둘째 문장	far more tolerant of religious minorities, including the Jews	내용 일치 · 요지
★	22쪽 ¶4 셋째 문장	Sultan Beyazit II is supposed to have welcomed the Jews with open arms	전언 — 서답형 후보
◆	22쪽 ¶4 셋째 문장	the Catholic monarch's loss was his gain	밑줄 의미 1순위 · his = Beyazit II
★	22쪽 ¶5 첫 문장	Jews had to pay higher taxes, but they were allowed to practise	내용 일치 — 반전 후보 lower
▲	22쪽 ¶5 첫 문장	were allowed to practise … and given the autonomy to run	수동 병렬 (were) given
★	22쪽 ¶5 셋째 문장	Intolerance is not an inevitable manifestation of Islam	저자의 주장 · 요지
◆	22쪽 ¶6 첫 문장	don't hold up to scrutiny either	밑줄 의미: 따져 보면 무너진다
▲	22쪽 ¶6 셋째 문장	Hence the common misunderstanding of the term jihad … to mean	동사 없는 문장 Hence + 명사구
★	22쪽 ¶6 셋째 문장	which originally meant striving towards any worthy goal	내용 일치 — 지하드의 본뜻
★	23쪽 첫 줄(22쪽 ¶6 넷째 문장)	it also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earning	빈칸 1순위
◆	23쪽 첫 줄(22쪽 ¶6 넷째 문장)	'the ink of the scholar is more sacred than the blood of the martyr'	밑줄 의미: 학문 > 순교
▲	23쪽 첫 줄(22쪽 ¶6 다섯째 문장)	would have been impossible had Muslims not translated	if 생략 도치 가정법 과거완료
★	23쪽 ¶1 셋째 문장	especially centred around Baghdad in the tenth and the eleventh centuries	숫자 — 일치 후보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3쪽 ¶1 다섯째 문장	not to speak of the Mediterranean world	~는 말할 것도 없고
★	23쪽 ¶1 여덟째 문장	you didn't even have to be trained in law to be a judge until the nineteenth century	내용 일치 – 숫자 바꿔치기 주의

내용

박해받던 유대인이 무슬림 나라로 피했다는 것이 오늘날에는 이상해 보이지만, 그때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오스만 제국은 스페인이나 다른 기독교 나라들보다 유대인을 비롯한 종교적 소수자에게 훨씬 관대했다. 술탄 바예지드 2세는 유대인을 두 팔 벌려 반겼다고 하며, 가톨릭 군주의 손실이 곧 자신의 이득이라고 말했다고 전한다. 오스만 제국에서 유대인은 다른 모든 비무슬림처럼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했지만, 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었고 공동체를 원하는 대로 꾸려 갈 자치권도 받았다. 유대인은 궁정의 조언자와 외교관, 상인과 제조업자, 짐꾼과 석공까지 제국의 모든 자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일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불관용은 이슬람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슬람에 대한 다른 부정적 고정관념도 따져 보면 버티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이슬람을 호전적인 종교로 보고, 근본주의 무슬림이 그런 시각을 부추겨 왔다. 그래서 본래 어떤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애쓰는 것을 뜻하던 지하드라는 말이 이교도에 맞선 종교 전쟁이라는 뜻으로 흔히 오해된다. 이슬람에는 호전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면이 있지만 학문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학자의 잉크는 순교자의 피보다 더 성스럽다'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말이 그것을 잘 보여 준다. 저자는 무슬림이 고대 그리스와 라틴의 고전을 아랍어로 옮겨 보존하지 않았다면 르네상스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본다. 그 글들은 뒤에 다시 유럽 언어로 옮겨졌다. 유럽의 기독교도는 기독교 이전의 그리스 · 라틴 문헌을 이교의 것이라며 내버려 두거나 일부러 없앴다. 이슬람이 과학의 진보나 경제 발전 같은 현실 문제에 관심 없는 내세 지향의 종교라는 고정관념도 있다. 그러나 이슬람은 경제 발전을 북돋우는 문화적 가치와 자주 맞닿아 있었다. 중세의 무슬림 세계는 수학과 과학(특히 10~11세기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그리고 법학에서 유럽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alcohol · alkali · algebra · algorithm처럼 아랍어에서 온 과학 낱말이 얼마나 많은지만 보아도 알 수 있다(al은 아랍어의 정관사). 상업도 크게 발달해서, 아랍 상인들은 지중해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동쪽으로는 한국, 서쪽으로는 아프리카와 교역했다. 예언자 무함마드가 상인이었던 것이 큰 까닭이 되어 상인의 사회적 지위가 높았고, 상인의 종교답게 이슬람은 계약법을 매우 중시했다. 무슬림 나라들은 기독교 나라들보다 몇 세기 앞서 훈련받은 판사를 두었다. 유럽의 대부분 나라에서는 19세기까지 판사가 되려고 법을 배울 필요조차 없었다.

어법

- **Today it seems strange that persecuted Jews would flee to a Muslim country, but it was then an obvious choice** : 가주어 it + 진주어 that절. strange 같은 판단 · 감정 표현 뒤 that절의 would = '그런 일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놀라움. 뒤의 it = 무슬림 나라로 피하는 일.
- **Compared to Spain and other Christian countries, the Ottoman Empire was far more tolerant of religious minorities, including the Jews** : compared to = ~와 비교하면(과거분사 구문). far = 비교급 강조. be tolerant of = ~에 관대하다. including = ~을 포함하여(전치사).
- **Sultan Beyazit II is supposed to have welcomed the Jews with open arms, apparently saying that the Catholic monarch's loss was his gain** : be supposed to have p.p. = ~했다고 한다(전언, 완료부정사로 앞선 과거). apparently = 듣자 하니(단정 아님). saying = 동시 동작 분사구문. his = Beyazit II.
- **Jews had to pay higher taxes, but they were allowed to practise their religion freely and given the autonomy to run their communities as they wished** : were allowed와 (were) given이 수동으로 병렬. give + IO + DO의 수동 = be given the autonomy. to run = autonomy를 꾸미는 형용사적 to부정사. as they wished = 원하는 대로.

- **Intolerance is not an inevitable manifestation of Islam, contrary to what some people think** : contrary to + 명사(what절) = ~와 반대로. what =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저자의 주장이다.
- **Hence the common misunderstanding of the term jihad – which originally meant striving towards any worthy goal – to mean a religious war against the infidels** : Hence + 명사구 = 동사 없는 문장(그래서 ~이 생긴다). misunderstanding of A to mean B = A를 B를 뜻한다고 오해함. 대시 사이 = 계속적 which 삽입.
- **the Renaissance would have been impossible had Muslims not translated many classical Greek and Latin works into Arabic** : if를 생략한 가정법 과거완료 도치: had + S + not p.p. = if Muslims had not translated. would have been = 과거 사실의 반대. 저자의 판단이다.
- **Merchants had high social status, not least because Muhammad, the Prophet, was a merchant himself. Being a merchant's religion, Islam took contract law very seriously.** : not least because = 특히 ~ 때문에(큰 이유 가운데 하나). himself = 강조 재귀대명사. Being ~ = 이유의 분사구문(As it was a merchant's religion).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persecuted	박해받는	oppressed	favored
tolerant	관대한	open-minded	intolerant
minority	소수(자)	—	majority
autonomy	자치권	self-rule	dependence
inevitable	피할 수 없는	unavoidable	avoidable
manifestation	드러남, 표현	expression	—
scrutiny	면밀한 검토	inspection	—
militaristic	호전적인	warlike	peaceful
fundamentalist	근본주의의	extremist	moderate
infidel	이교도	unbeliever	believer
epitomize	전형적으로 보여 주다	embody	—
heathen (a.)	이교의	pagan	—
other-worldly	내세 지향의	spiritual	worldly
attuned to	~에 맞닿은	in tune with	out of touch with

내용 일치 무슬림 나라로 피한 것 = 그때는 당연한 선택 · 오스만 제국 = 기독교 나라들보다 종교적 소수자에게 훨씬 관대 · 바예지드 2세가 반겼다 = '그랬다고 한다'(is supposed to · apparently) · 유대인 = 세금은 더 많이(모든 비무슬림처럼) / 종교의 자유 · 자치권 · 모든 직업 · 불관용은 이슬람의 필연적 모습이 아니다 = 저자의 주장 · jihad의 본뜻 =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한 노력 · 학자의 잉크 > 순교자의 피(무함마드) · 번역 없이는 르네상스 불가능 = 저자의 판단 · 중세 무슬림 세계 = 수학 · 과학 · 법학에서 유럽보다 앞섬 · 바그다드 = 10~11세기 · 아랍 상인 = 동쪽 한국, 서쪽 아프리카 · 무함마드 = 상인 · 유럽 = 19세기까지 법을 배우지 않아도 판사. **밑줄 의미** the Catholic monarch's loss was his gain = 스페인이 쫓아낸 유대인이 오스만 제국에는 득이 됨(바로 뒤 ¶5: 모든 자리에서 일함) / don't hold up to scrutiny = 꼼꼼히 따지면 무너진다 / the ink of the scholar is more sacred than the blood of the martyr = 이슬람이 전쟁보다 학문을 높이 친다는 근거 / 23쪽 첫 줄 them(preserving them) = 그리스 · 라틴 고전.

> **한 줄 요약** 오스만 제국은 쫓겨난 유대인을 관대하게 받아들였고 이슬람은 학문 · 과학 · 상업 · 법을 중시해 왔으니, 불관용 · 호전성 · 내세 지향이라는 고정관념은 따져 보면 무너진다.

1-4 카스트 없는 이슬람, 고정관념의 두 얼굴 23쪽 ¶2 ~ 24쪽 ¶3

원문 위치 원서 23쪽 ¶2 ~ 24쪽 ¶3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3쪽 ¶2 첫 문장	has the potential to make it more suited for economic development than	make + O + 형용사 보어 + 비교
★	23쪽 ¶2 둘째 문장	Muslim culture does not have a caste system, which restricts … and thereby limits	내용 일치 · 계속적 which + 단수 동사
◆	23쪽 ¶2 넷째 문장	was no joke either	밑줄 의미: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	23쪽 ¶2 다섯째 문장	the sons (but only sons) of farmers could pass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내용 일치 — 농민의 '아들만'
◆	23쪽 ¶2 여섯째 문장	But this rarely happened in practice.	지칭: this = 농민의 아들이 지배층에 드는 일
★	23쪽 ¶2 일곱째 문장	The sons of artisans and merchants (who were just above slaves) were not even allowed	내용 일치 · 어법(복수 주어 were)
▲	23쪽 ¶2 여덟째 문장	No wonder that … still had difficulties in convincing talented youngsters to become	No wonder that / convince + O + to V
★	23쪽 ¶3 첫 문장	there is nothing inherently anti-developmental about Muslim culture	요지 — 저자의 결론
★	24쪽 첫 줄(23쪽 ¶3 셋째 문장)	Malaysia and Dubai both illustrate that Islam is compatible with economic progress	예시 — 일치 후보
▲	24쪽 ¶1 첫 문장	Ignorance and, sometimes, malice, lead us to use	복수 주어 + lead + O + to V
★	24쪽 ¶1 둘째~셋째 문장	attribute whatever socio-economic problems the countries have to their culture … miss the real causes	요지 1순위 / attribute A to B
★	24쪽 ¶2	can be 'positive' … but still misrepresents reality	요지 · 요약 후보
◆	24쪽 ¶3 둘째 문장	But which culture doesn't?	밑줄 의미: 수사의문문 — 어느 문화나 강조한다
★	24쪽 ¶3 셋째 문장	in 1961, its per capita income was $93, against Ghana's $190	숫자 — 불일치 1순위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4쪽 ¶3 인용 끝	'In short, cultures count.'	밑줄 의미: 헌팅턴의 결론(저자가 반박)
★	24쪽 ¶3 마지막 문장	a perfect example of positive cultural stereotyping	요지 — 저자의 평가

내용

이슬람에는 다른 문화보다 경제 발전에 더 잘 맞을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더 있다. 남아시아의 힌두교나 동아시아의 유교와 달리 무슬림 문화에는 카스트 제도가 없다. 카스트 제도는 태어난 신분에 따라 직업 선택을 제한하고, 그래서 사회적 이동을 가로막는다. 힌두 카스트 제도의 복잡함과 경직성,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이동에 끼친 나쁜 영향은 잘 알려져 있다. 전통 유교 사회의 신분 제도는 힌두교만큼 정교하거나 강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농민의 아들(아들만)이 과거 시험에 붙어 지배층인 학자 관료 계층에 들 수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이동은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드물었다. 장인과 상인(노예 바로 위의 신분)의 아들은 과거를 볼 수조차 없었다. 그러니 근대 초에 전통 신분 제도가 공식적으로 없어진 뒤에도, 유교 나라들이 재능 있는 젊은이에게 엔지니어(지나치게 많이 배운 장인으로 여겨짐)나 기업가(오늘날의 상인)가 되라고 설득하기 어려웠던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 직업들은 유교 나라들에서 경제 발전이 본궤도에 올라 돈과 힘이 되는 일이 되고 나서야 존중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무슬림 문화에 본래부터 발전을 거스르는 것은 없다. 학문의 강조, 과학적 사고의 전통, 사회적 위계의 부재, 상업의 중시, 강한 법치주의, 관용처럼 그 많은 요소가 경제 발전에 잘 맞는다. 말레이시아와 두바이는 이슬람이 경제 발전과 함께 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무지 때문에, 때로는 악의 때문에 우리는 '낯선' 문화에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씌운다.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부정적 특징만 골라내고, 그 나라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무엇이든 그 문화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그러면 문제의 진짜 원인을 놓친다. 문화적 고정관념은 한 사회(대개 우리 자신의 사회)의 좋은 점을 부풀리는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 역시 현실을 잘못 그리고 실제로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막는다. 많은 사람이 동아시아의 '경제 기적'을 그 지역의 유교 문화 덕으로 돌려 왔다. 유교 문화는 근면 · 근검 · 교육을 강조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그러지 않는 문화가 어디 있는가. 예를 들어 노련한 미국 정치학자이자 논란 많은 책『문명의 충돌(The Clash of Civilizations)』의 저자 새뮤얼 헌팅턴은, 1960년대 초 경제 발전 수준이 비슷했던 한국과 가나(실제로는 한국이 훨씬 가난해서 1961년 1인당 소득이 한국 93달러, 가나 190달러였다)가 왜 다른 길을 걸었는지 설명하며 이렇게 주장한다. '분명 많은 요인이 작용했지만… 문화가 설명의 큰 부분일 수밖에 없다. 한국인은 근검 · 투자 · 근면 · 교육 · 조직 · 규율을 중시했다. 가나인은 다른 가치를 지녔다. 요컨대 문화가 중요하다.' 저자는 헌팅턴의 유교 문화 묘사가 긍정적 고정관념의 완벽한 예라고 본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싶은 문화의 모습에 들어맞는 요소만 골라낸다는 것이다.

어법

- **Islam possesses another significant characteristic that has the potential to make it more suited for economic development than other cultures** : that = 주격 관계대명사(선행사 characteristic → 단수 has). make + O(it = Islam) + 형용사 보어(more suited for). the potential to V = ~할 가능성.
- **Muslim culture does not have a caste system, which restricts people's choice of occupation according to their birth and thereby limits social mobility** : 계속적 which = a caste system(단수 → restricts와 limits가 병렬). thereby = 그렇게 함으로써.
- **The complexity and the rigidity of the Hindu caste system and its negative impacts on social mobility are well known** : 주어가 A and B(of ~) and C로 묶인 복수 → are.
- **Although not as elaborate or as strong, the caste system in traditional Confucian societies was no joke either** : although (it was) not as ~ = 접속사 뒤 주어 + be동사 생략. no joke =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님. either = 부정문에서 '~도 역시'.

- **There was some degree of social mobility in that the sons (but only sons) of farmers could pass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get incorporated into the ruling caste of scholar-bureaucrats** : in that = ~라는 점에서. could 하나에 pass와 get이 병렬. get + p.p. = 수동(get incorporated = 편입되다).
- **The sons of artisans and merchants (who were just above slaves) were not even allowed to sit for the civil service exam** : 주어 The sons(복수) → were. 변형 → was는 오답. be allowed to V = ~해도 되다. sit for = (시험을) 치르다.
- **No wonder that in early modern times, even when the traditional caste system had been formally abolished, Confucian countries still had difficulties in convincing talented youngsters to become engineers** : (It is) No wonder that = ~은 놀랄 일이 아니다. had been abolished = 과거완료 수동. have difficulties (in) -ing = ~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convince + O + to V.
- **We pick only those negative features of a culture that unsettle us and attribute whatever socio-economic problems the countries have to their culture** : that unsettle = 선행사 features(복수)에 맞춘 동사. pick과 attribute가 병렬. attribute A to B = A를 B 탓으로 돌리다. whatever + 명사 + S + V = 어떤 …이든.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caste	카스트, 세습 신분	hereditary class	—
restrict	제한하다	limit	allow
rigidity	경직성	inflexibility	flexibility
elaborate (a.)	정교한	complex	simple
artisan	장인	craftsman	—
abolish	없애다	do away with	establish
lucrative	돈벌이가 되는	profitable	unprofitable
inherently	본래, 본질적으로	intrinsically	—
compatible with	~와 함께 갈 수 있는	consistent with	incompatible with
malice	악의	ill will	goodwill
unsettle	불안하게 하다	disturb	reassure
attribute A to B	A를 B 탓으로 돌리다	ascribe A to B	—
misrepresent	잘못 전하다	distort	—
divergence	갈라짐, 차이	split	convergence

내용 일치 카스트 제도가 없는 문화 = 무슬림(힌두교 남아시아 · 유교 동아시아와 대비) · 카스트 = 출생에 따른 직업 제한 → 사회적 이동 제한 · 유교 신분 제도 = 힌두보다 덜 정교하고 덜 강하지만 만만치 않음 · 과거 = 농민의 '아들만', 실제로는 드묾 · 장인 · 상인의 아들 = 응시조차 못 함 · 엔지니어 = 지나치게 배운 장인 / 기업가 = 오늘날의 상인 · 존중받게 된 때 = 경제 발전으로 돈과 힘이 된 뒤 · 무슬림 문화에 본래 반발전적인 것은 없다(저자의 결론) · 예 = 말레이시아 · 두바이 · 유교가 근면 · 근검 · 교육을 강조 = '그렇다고들 한다'(supposedly) · 1960년대 초 비슷한 수준 · 1961년 1인당 소득 한국 93달러 < 가나 190달러 · 헌팅턴 = 미국 정치학자,『문명의 충돌』. **밑줄 의미** no joke either = 힌두 카스트만큼은 아니어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 But which culture doesn't? = 근면 · 근검 · 교육을 강조하지 않는 문화는 없다 → 유교만의 특징이 아니다 / In short, cultures count = 헌팅턴의 결론(저자가 반박하는 쪽) / 23쪽 ¶2 this(rarely happened) = 농민의 아들이 과거에 붙어 지배층에 드는 일.

한 줄 요약 카스트가 없고 학문 · 상업 · 법을 중시하는 무슬림 문화에 본래 반발전적인 것은 없으며, 부정적이든 헌팅턴처럼 긍정적이든 문화적 고정관념은 경제 성과의 진짜 원인을 가린다.

1-5 게으르다던 동아시아, 여러 얼굴의 문화 24쪽 ¶4 ~ 25쪽 ¶2

원문 위치 원서 24쪽 ¶4 ~ 25쪽 ¶2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4쪽 ¶4 첫~둘째 문장	Confucianism is supposed to encourage hard work. Yet … described as lazy	전언 + 반전 — 요지
★	24쪽 ¶4 셋째 문장	An Australian engineer who toured factories in Japan in 1915, at the request of the Japanese government	숫자 · 인물 — 일치 후보
◆	24쪽 ¶4 셋째 문장	a very satisfied easy-going race who reckon time is no object	밑줄 의미: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
▲	24쪽 ¶4 넷째 문장	they informed me that it was impossible to change	inform + O + that / 가주어 it
★	24쪽 ¶4 다섯째 문장	In 1912, when she toured Japan and Korea, Beatrice Webb	서답형 1순위
●	24쪽 ¶4 다섯째 문장	'objectionable notions of leisure and a quite intolerable personal independence'	어휘 반전: objectionable ↔ admirable
◆	24쪽 ¶4 여섯째 문장	That's coming from a founder of Fabian socialism.	지칭: That = 웹의 묘사
▲	24쪽 ¶4 일곱째 문장	We might imagine what typical rightwing white supremacists of the time said	간접의문문 what + S + V
▲	24쪽 ¶5 첫 문장	the education that was traditionally emphasized was what was needed for	주어 + 관계절 / what절 보어
★	24쪽 ¶5 셋째 문장	Practical pursuits other than agriculture … were looked down upon	내용 일치 · 구동사 수동
◆	25쪽 첫 줄(24쪽 ¶5 다섯째 문장)	that discipline is bought at the cost of conformism	밑줄 의미 1순위
▲	25쪽 첫 줄(24쪽 ¶5 여섯째 문장)	this asser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less plausible, given	진행형 + increasingly less / given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5쪽 ¶1 둘째 문장	In the same way in which Islam could be typecast in entirely positive light	전치사 + 관계대명사
★	25쪽 ¶1 넷째 문장	is as real as the other-worldly, intolerant and militaristic version	요약 · 일치 — as ~ as 동등
★	25쪽 ¶1 여섯째 문장	What a society makes out of its cultural raw material is in large part a matter of choice – and thus policy action	주장 · 빈칸 1순위
★	25쪽 ¶2	can promote development, equal opportunities and other positive things in any cultural context	주장 — 정책은 어느 문화에서든

내용

유교는 근면을 장려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과거 서양 방문객들은 동아시아 사람들을 흔히 게으르다고 묘사했다. 1915년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생산성 향상에 대해 조언하려고 일본의 공장들을 둘러본 한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네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보니, 당신들은 시간을 아랑곳하지 않는, 아주 만족해하며 느긋한 민족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몇 관리자와 이야기해 보니 국민적 유산인 습관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1912년 일본과 한국을 둘러본 영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 개혁가 비어트리스 웹은 일본인에게 '여가에 대한 못마땅한 관념과 도무지 참을 수 없는 개인적 독립심'이 있다고 했고, 저자의 조상들은 '더럽고 타락하고 뚱하고 게으르며 종교도 없는 1,200만 야만인'이라고 묘사했다.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창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한 말이다. 그 시대의 전형적인 우파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유교 나라 사람들을 두고 무슨 말을 했을지 짐작할 만하다. 이름난 유교의 교육열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으로 강조된 교육은 과거 시험에 필요한 정치 철학과 시였다. 이것들은 경제 발전에 직접 쓸모가 있지는 않다. 농업이 아닌 실용적인 일, 곧 물건을 만들고 장사하는 일은 업신여겨졌다. 헌팅턴 같은 논평가들은 유교 문화가 사람들에게 심어 주는 규율을 칭찬한다(비어트리스 웹은 일본과 한국에서 규율 없음만 보았지만). 그러나 그 규율은 순응주의라는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다. 순응하라는 압력 때문에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독창성과 기업가 정신이 모자란다고 주장한 논평가들도 있지만, 오늘날 동아시아가 내놓는 기술 혁신과 독창적인 영화, 중독성 있는 드라마, 창의적인 음악을 생각하면 그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 저자는 헌팅턴식의 긍정적 고정관념을 더 해체할 수도 있지만 요점은 이미 전해졌다고 말한다. 이슬람을 온통 긍정적으로 그릴 수 있듯이, 유교도 온통 부정적으로 그릴 수 있다. 문화에는 서로 다르고 복잡한 여러 면이 있다. 관대하고 규칙을 따르며 과학을 지향하고 상업 감각이 있는 이슬람은 내세 지향적이고 불관용적이며 호전적인 이슬람만큼이나 실재한다. 근면하고 배움을 중시하며 검소하고 규율 있는 유교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 근면의 문화를 심는 데 무력하고 사회적 이동을 막으며 상공업을 업신여기고 창의성을 억누르는 유교도 있다. 한 사회가 문화라는 원재료로 무엇을 만들어 내느냐는 상당 부분 선택의 문제이고, 그러므로 정책 행동의 문제다. 올바른 경제 · 사회 정책은 어떤 문화적 맥락에서든 발전과 평등한 기회, 그 밖의 긍정적인 것들을 북돋울 수 있다.

어법

- Yet in the past East Asians were typically described as lazy by Western visitors : describe A as B의 수동 = be described as + 형용사(+ by 행위자). Yet = 그러나(앞 문장 is supposed to ~와 대조).
- 'to see your men at work made me feel that you are a very satisfied easy-going race who reckon time is no object.' : to부정사 주어(to see ~)는 단수 취급(동사 made는 과거형이라 수가 드러나지 않음). 사역 make + O + 원형(feel). race who reckon = 집합명사를 사람들로 보아 복수 동사. reckon (that) time is no object = 시간은 문제가 안 된다고 여기다.

- **We might imagine what typical rightwing white supremacists of the time said about people in Confucian countries** : 간접의문문 what + S + V(평서문 어순). 변형 → what did ~ say는 오답. might = 조심스러운 추측 · 제안.
- **the education that was traditionally emphasized was what was needed for the civil service exam – political philosophy and poetry** : 주어 the education + 관계절, 동사 was, 보어 what절(필요했던 것). 대시 뒤 = 그 내용을 밝히는 동격.
- **Practical pursuits other than agriculture, such as making things and trading, were looked down upon** : 구동사 look down upon의 수동: 전치사 upon이 동사 뒤에 그대로 남는다. 복수 주어 pursuits → were. other than = ~ 이외의.
- **this assertion is becoming increasingly less plausible, given the amou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original movies, addictive drama series and creative music that the East Asians produce these days** : 현재진행 = 지금 점점 변하는 중. increasingly less = 점점 덜. given = ~을 고려하면. that = 목적격 관계대명사(produce의 목적어).
- **In the same way in which Islam could be typecast in entirely positive light, Confucianism can be presented in entirely negative light** : 전치사 + 관계대명사(in which가 the way를 꾸밈). could/can be p.p. = 그렇게 그려질 수 있다(가능성). typecast = 틀에 박힌 역으로 굳히다.
- **What a society makes out of its cultural raw material is in large part a matter of choice – and thus policy action** : what절 주어(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 단수 is. make A out of B = B로 A를 만들다. in large part = 상당 부분. thus = 그러므로.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azy	게으른	idle	industrious
easy-going	느긋한	relaxed	uptight
heritage	유산	legacy	—
objectionable	못마땅한	offensive	acceptable
intolerable	참을 수 없는	unbearable	bearable
sullen	뚱한, 시무룩한	sulky	cheerful
zeal	열의	enthusiasm	apathy
look down upon	업신여기다	despise	look up to
instil	심어 주다	implant	—
conformism	순응주의	conformity	nonconformity
plausible	그럴듯한	believable	implausible
facet	면, 측면	aspect	—
typecast (v.)	틀에 박힌 역으로 굳히다	stereotype	—
ineffectual	무력한	ineffective	effective

내용 일치 유교가 근면을 장려한다 = '그렇다고들 한다'(is supposed to) · 과거 서양 방문객 = 동아시아인을 게으르다고 묘사 · 오스트레일리아 엔지니어 = 1915년, 일본 정부의 요청, 생산성 조언 · 비어트리스 웹 = 1912년 일본과 한국, 영국 사회학자 · 사회개혁가, 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창시자 가운데 한 명 · 웹이 못마땅해한 것 = 일본인의 여가 관념과 개인적 독립심 · 한국인 묘사 = 1,200만, 더럽고 게으른 야만인 · 전통 교육 = 과거 시험용 정치 철학과 시(경제 발전에 직접 쓸모 없음) · 업신여긴 일 = 농업 이외의 실용적 일(만들기 · 장사) · 규율의 대가 = 순응주의 · 독창성 부족이라는 주장 = 점점 설득력이 떨어짐 · 문화의 원재료로

무엇을 만드느냐 = 선택 → 정책 행동. **밑줄 의미** reckon time is no object = 시간을 아끼거나 지키려 하지 않는다(게으르다는 평가) / That's coming from a founder of Fabian socialism = 사회 개혁가조차 이렇게 말했으니 다른 이들은 더했을 것 / bought at the cost of conformism = 규율의 대가로 순응을 치름 / cultural raw material = 사회가 가공하기 나름인 문화의 재료.

> **한 줄 요약** 유교는 근면 · 교육 · 규율의 문화라지만 한때는 게으르다는 말을 들었고 그 교육과 규율에도 그늘이 있었으니, 문화의 여러 면 가운데 무엇을 살리느냐는 선택과 정책의 문제다.

1-6 정책이 만든 노동력 · 교육열 · 저축률 25쪽 ¶3 ~ 26쪽 ¶5 + 27쪽 각주 ii

원문 위치 원서 25쪽 ¶3 ~ 26쪽 ¶5 + 27쪽 각주 ii — 원서를 펴고 문장마다 [1] [2] … 번호를 연필로 매긴 뒤, 아래 자리에 기호를 직접 표시한다.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5쪽 ¶3 첫 문장	lacked a modern industrial workforce with the habit of time-keeping and industrial discipline	내용 일치 · 통합 사고
▲	25쪽 ¶3 둘째 문장	was forged by concrete actions – the instillation of …, an ideological campaign …, and having a labour law	수동 + 대시 뒤 셋 병렬
★	25쪽 ¶4 첫 문장	not because Confucius emphasized erudition but because land reform and other policies … increased social mobility	not because A but because B — 빈칸
▲	25쪽 ¶4 둘째 문장	Despite Confucianism having been … and despite having been colonized	despite + 의미상 주어 + 완료 동명사
★	25쪽 ¶4 둘째 문장	the literacy rate in South Korea was only 22% when the Japanese colonizers left in 1945	숫자 — 서답형 1순위
★	25쪽 ¶4 셋째 문장	53% in Buddhist Thailand (1947), 52% in Christian Philippines (1948) and 38% in predominantly Muslim Malaysia (1947)	숫자 바꿔치기 주의
▲	25쪽 ¶5 첫 문장	Korea found the youngsters to be reluctant to take up	find + O + to be / because of
★	25쪽 ¶5 둘째 문장	allowed the best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s to have vastly shortened (mandatory) military service	내용 일치 · allow + O + to V
▲	26쪽 첫 줄(25쪽 ¶5 셋째 문장)	would have resulted in … unless there were suitable jobs for them, as has happened	would have p.p. + unless / 유사관계대명사 as

기호	위치	원서에서 찾을 말	왜 이 자리인가
◆	26쪽 첫 줄(25쪽 ¶5 셋째 문장)	an army of highly educated unemployeds	밑줄 의미: 일자리 없는 고학력자 무리
★	26쪽 ¶1 첫 문장	22% of GDP in the early 1990s and in China it reached 39% of GDP in 2010	숫자 — 22%가 두 번 나옴
◆	26쪽 ¶1 둘째 문장	This is wrong.	지칭: This = 근검이 문화적 특성이라는 말
★	26쪽 ¶2 첫 문장	below 3% of GDP – in 1960, it was not even 1%	숫자 — 불일치 후보
★	26쪽 ¶3 셋째~넷째 문장	consumption could not keep pace with ... income. On top of that, the government severely restricted mortgage loans and consumer loans	요지 · 빈칸 — 이유 둘(주된 것 + 덧붙인 것)
★	26쪽 ¶4	plummeted ... (3–5%) ... a mere 5%, ... Chile (10.5%) or Mexico (11.4%)	숫자 · 요약 후보
★	26쪽 ¶5 셋째 문장	culture is much less powerful than policies in determining	주장 · 통합 사고

내용

일본과 한국에는 시간을 지키는 습관과 산업 규율을 갖춘 현대적 산업 노동력이 없었다. 이 노동력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만들어졌다. 학교에서 시간을 지키는 습관과 규율을 심었고, 경제 발전으로 '나라를 다시 세우는' '애국 전쟁'에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념 캠페인을 벌였으며, 긴 노동 시간과 가혹한 노동 관행을 허용하는 노동법을 두었다. 유교 나라 사람들이 교육에 많이 투자한 것도 공자가 학식을 강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뒤에 도입된 토지 개혁과 다른 정책들이 사회적 이동을 높여 교육의 보상을 키웠기 때문이다. 유교가 수백 년 동안 국가의 공식 이념이었고 또 다른 유교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도, 1945년 일본 식민 지배자들이 떠날 때 한국의 문해율은 22%에 지나지 않았다. 비슷한 때 불교 나라 타이는 53%(1947년), 기독교 나라 필리핀은 52%(1948년), 무슬림이 다수인 말레이시아는 38%(1947년)였다. 1960~70년대 경제 발전을 막 밀어붙이던 시기에, 한국은 실용적인 일을 낮잡아 보는 유교의 오랜 편견 때문에 젊은이들이 과학과 공학 같은 직업을 꺼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한국 정부는 인문 · 사회과학 학과의 대학 정원과 예산을 일부러 제한하고, 가장 뛰어난 과학 · 공학 졸업생에게는 (의무) 병역 기간을 크게 줄여 주었다. 물론 알맞은 일자리가 없었다면 과학 · 공학 졸업생을 더 길러 낸들 고학력 실업자 군대만 생겼을 것이다(다른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이를 막으려고 한국 정부는 공공 정책 개입으로 산업화를 밀고 나갔고, 그렇게 해서 이 졸업생들이 졸업하자마자 들어갈 수 있는 보수 좋고 지적으로 보람 있는 일자리를 만들었다. 유교 나라들의 가계 저축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든다는 것(한국은 1990년대 초 GDP의 22%, 중국은 2010년 GDP의 39%)을 보고 사람들은 근검이 이 나라들의 문화적 특성이라고 말해 왔다. 저자는 이것이 틀렸다고 말한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던 1960년대 초, (가계만이 아닌) 총저축률은 GDP의 3%에 못 미쳤고 1960년에는 1%도 되지 않았다. 유교 문화가 있든 없든, 사람들이 너무 가난해 아무것도 저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뒤 30년 동안 한국의 저축, 특히 가계 저축은 크게 늘었다. 유교 문화가 되살아나서가 아니다. 오히려 농업 사회에 맞는 이념인 유교 문화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그 기간 내내 약해지고 있었다. 가계 저축이 늘어난 주된 까닭은 나라가 너무 빨리 성장해 사람들의 소비 증가가 소득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생산자에게 돌아갈 대출을 최대로 늘리려고 주택 담보 대출과 소비자 대출을 엄격히 제한했다. 한국인은 집 · 자동차 · 냉장고 같은 큰 물건을 사려면 먼저 저축해야 했다. 1990년대 말 이 제한이 없어지자 가계 저축률은 몇 년 사이에 1990년대 초의 정점인 GDP의 22%(당시 세계 최고)에서 세계 최저 수준(3~5%)으로

곤두박질쳤다. 지금(2005~14년 평균) 한국의 GDP 대비 가계 저축률은 5%에 지나지 않아, 흥청망청 쓴다고들 하는 칠레(10.5%)나 멕시코(11.4%) 같은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의 절반도 안 된다. 문화가 사람들의 가치와 행동, 나아가 한 나라 경제가 짜이고 발전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러나 그 방식은 흔히 보는 단순한 고정관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모든 문화에는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여러 면이 있다. 무엇보다 개인의 경제 행동과 나라의 경제 성과를 정하는 데 문화는 정책보다 훨씬 힘이 약하다. 도토리를 먹는 한국인이든, 도토리를 먹은 돼지를 먹지 않을 무슬림이든 마찬가지다.

어법

- **This workforce was forged by concrete actions – the instillation of time-keeping habits and discipline in schools, an ideological campaign emphasizing the need for hard work ..., and having a labour law allowing long hours and harsh work practices** : 수동태 be forged by. 대시 뒤 = concrete actions를 풀어 쓴 셋(명사구 · 명사구 · 동명사구) 병렬. emphasizing · allowing = 앞 명사를 꾸미는 현재분사.
- **People made high investments in education in the Confucian countries not because Confucius emphasized erudition but because land reform and other policies introduc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increased social mobility and thus the return to education** : not because A but because B. introduced = 과거분사 후치(policies를 꾸밈). increased의 목적어 = social mobility와 the return to education 둘.
- **Despite Confucianism having been the official state ideology for several hundred years and despite having been colonized by another Confucian country, the literacy rate in South Korea was only 22%** : despite + 동명사(전치사 뒤). Confucianism = 첫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 having been (p.p.) = 완료 동명사(주절보다 앞선 일). 두 번째 having been colonized의 의미상 주체는 주절의 the literacy rate가 아니라 한국이다.
- **Korea found the youngsters to be reluctant to take up professions like science and engineering because of the old Confucian cultural prejudices against practical pursuits** : find + O + to be 보어 = O가 ~라는 것을 알게 되다. be reluctant to V = ~하기를 꺼리다. because of + 명사구(뒤에 절이 오면 because).
- **producing more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s would have resulted in an army of highly educated unemployeds unless there were suitable jobs for them, as has happened in many other developing countries** : 동명사 주어 + would have resulted in = (그랬다면) ~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unless = if not. as has happened = 앞 내용 전체를 받아 주어 노릇을 하는 유사관계대명사 as.
- **Household savings rose mainly because the country grew so fast that the increase in people's consumption could not keep pace with the increase in their income** : so ~ that = 너무 ~해서 …하다(결과). keep pace with = ~와 보조를 맞추다. mainly = 주된 이유(뒤의 On top of that = 그에 더해 둘째 이유).
- **When the country abolished these restrictions in the late 1990s, within a few years its household savings plummeted from the height of 22% of GDP in the early 1990s (the highest in the world then) to one of the lowest in the world (3–5%)** : from A to B = A에서 B로. one of the + 최상급 + 복수 명사(savings ratios 같은 '저축률' 명사 생략) = 가장 ~한 것 가운데 하나. these restrictions = 주택 담보 대출과 소비자 대출의 제한.
- **Most importantly, culture is much less powerful than policies in determining individual economic behaviour and national economic performance, whether they are of acorn-eating Koreans or of Muslims who wouldn't eat acorn-eating pigs** : much = 비교급 강조(less powerful). whether A or B = A든 B든. they = 경제 행동과 성과. acorn-eating = 명사 + 현재분사의 복합 형용사.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forge (v.)	만들어 내다	build	—
harsh	가혹한	severe	mild
erudition	학식	scholarship	ignorance

단어·표현	뜻	유의어	반의어(반전 후보)
literacy	문해력	reading ability	illiteracy
reluctant	꺼리는	unwilling	eager
mandatory	의무의	compulsory	voluntary
fulfilling	보람 있는	rewarding	unrewarding
thrift	근검	frugality	extravagance
agrarian	농업의	agricultural	industrial
keep pace with	~와 보조를 맞추다	keep up with	fall behind
plummet	곤두박질치다	plunge	soar
spendthrift (a.)	낭비하는	extravagant	thrifty

내용 일치 일본 · 한국 = 시간 엄수 · 산업 규율을 갖춘 노동력이 없었음 → 학교 · 이념 캠페인 · 노동법으로 만들어짐 · 교육 투자의 까닭 = 공자의 학식 강조가 아니라 전후 토지 개혁 등으로 커진 사회적 이동 · 1945년 한국 문해율 22% / 타이 53%(1947) · 필리핀 52%(1948) · 말레이시아 38%(1947) · 1960~70년대 = 과학 · 공학 기피 → 인문 · 사회과학 정원 · 예산 제한, 병역 단축 · 공공 정책 개입으로 산업화 → 일자리 · 가계 저축 = 한국 1990년대 초 GDP의 22%, 중국 2010년 39% · 1960년대 초 총저축률 3% 미만, 1960년 1% 미만 · 저축 증가의 까닭 = 고속 성장(주된 까닭) + 대출 규제 · 규제 폐지 → 3~5% · 2005~14년 평균 5% < 칠레 · 멕시코 · 유교 = 정치 · 사회 철학(27쪽 각주 ii). **밑줄 의미** an army of highly educated unemployeds = 일자리 없이 쏟아져 나온 고학력 실업자 무리 / This is wrong = 근검이 문화적 특성이라는 말을 정면으로 부정 / supposedly 'spendthrift' = 흥청망청 쓴다고들 하는(저자는 그 통념을 비꼼) / 26쪽 첫 줄 this(to avoid this) = 고학력 실업자 군대가 생기는 일 / 26쪽 ¶5 they = 개인의 경제 행동과 나라의 경제 성과.

> **한 줄 요약** 시간을 지키는 노동력, 교육열, 과학 · 공학 인력, 높은 저축률은 모두 유교 문화가 아니라 정책이 만들었으니, 문화는 정책보다 훨씬 힘이 약하다.

바른에듀케이션 실전 변형 모의고사 (원서 강독 평가 대비)

Edible Economics [Chapter 1 ACORN]

범위	Acorn (원서 PDF 21~27쪽)	시간	40분	성명	

※ 객관식 16문항(90점) + 서답형 1문항(10점) = 100점. 지문은 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쓴 글입니다. 유형 순서는 미추홀외고 지필평가 순서를 따릅니다. 끝난 뒤 '정답과 해설'로 채점합니다.

1.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 could pick apart the political scientist Samuel Huntington's flattering portrait of Confucianism further, but the point is clear. Just as Islam can be cast in a wholly favourable light, Confucianism can be drawn in a wholly unfavourable one. Every culture has many complicated sides. A tolerant, science-minded and trade-loving Islam is just as real as an otherworldly, warlike one. Confucianism, too, has a diligent and frugal face, and another that blocks social mobility, scorns business and stifles creativity. What a society builds from its cultural materials depends largely on choice, and therefore on policy.

① Policy shapes what a society makes of its culture.
② Confucian cultures develop faster than Muslim ones.
③ Culture fixes a nation's economic fate.
④ Traditional values must be protected.
⑤ Positive views of a culture are the most accurate.

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Because Confucian countries post some of the world's highest household savings ratios—Korea's reached 22% of its GDP during the early 1990s, and China's stood at 39% of its GDP in 2010—many people regard thrift as part of their culture. They are mistaken. In 1960, Korea's gross savings did not even reach 1% of GDP. Over the next thirty years savings soared, even as Confucian values faded with industrialization. Incomes rose faster than spending could catch up, and the government sharply limited home and consumer loans to steer credit to producers.

① Confucian Thrift Behind Korea's Savings
② Growth and Policy, Not Culture, Raised Savings
③ Industrialization Revived Confucian Values
④ Easy Credit Fuelled Korea's Savings
⑤ Why Poor Nations Save More

3.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gnorance, and sometimes ill will, leads us to judge unfamiliar cultures through negative stereotypes. We seize on the features that disturb us and blame those cultures for whatever social and economic troubles their countries face. In doing so, we fail to see the true causes of those troubles. Stereotypes can also flatter, exaggerating the virtues of a society, most often the one we belong to. But a flattering picture distorts reality just as badly as an unflattering one, and it blinds us to the forces actually at work in an economy.

① Positive stereotypes do no harm.
② A country's problems come from its culture.
③ We should praise our own culture most.
④ Ignorance of other cultures cannot be cured.
⑤ Stereotypes of any kind hide the real causes.

4. 밑줄 친 the Catholic monarch's loss was his gain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It may seem odd now that persecuted Jews would seek safety in a Muslim land, but then it made perfect sense. The Ottoman Empire treated religious minorities, Jews among them, far more tolerantly than any Christian country did. Sultan Beyazit II is said to have welcomed the refugees warmly, reportedly remarking that the Catholic monarch's loss was his gain. In his empire, Jews paid higher taxes like all non-Muslims, but they could worship freely, run their own communities, and serve in every role from court adviser and diplomat to merchant and mason.

① Spain's king would regret losing a war.
② Spain's exiles would enrich his empire.
③ He hoped to seize Spanish land.
④ Taking in Jews would cost him taxes.
⑤ The Jews would have to drop their faith.

5. 밑줄 친 bought at the cost of conformism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The much-praised Confucian love of learning centred on what the civil service exam required—political philosophy and poetry—neither of which does much for economic development. Practical work other than farming, such as manufacturing and trade, was scorned. Writers like Huntington applaud the discipline they credit to Confucian culture, though Beatrice Webb saw only indiscipline in Japan and Korea. Yet this kind of discipline is bought at the cost of conformism. Some critics even claim that the pressure to conform leaves East Asians short of originality, a claim that looks weaker every year given the technology, films, dramas and music the region now produces.

① Discipline breeds creativity.
② Discipline was costly to teach.
③ Discipline demands that people think and act alike.
④ Discipline came from the West.
⑤ Only Huntington values discipline.

6.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6.0점]

In 1391, Christian mobs forced many Jews to convert or die, and the converts had to eat pork publicly to prove their sincerity. Some of them, however, never let go of ① their original faith. At home ② they cooked neither pork nor shellfish, and ③ they kept dairy and meat apart. Once the Spanish Inquisition was founded in 1478, exposing these false converts became one of its goals. A favourite method was to check the chimneys of suspected converts on Saturday: if ④ they were still observing the Sabbath, no smoke would appear, as devout Jews did not cook that day. The inquisitors, it is said, also walked the alleys on Saturdays, and ⑤ they took note of every house that gave off no smell of cooking.

①
②
③
④
⑤

7.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5.4점]

Islam is also pictured as an otherworldly faith indifferent to science and growth. In fact, Islam has often been in tune with values that support development. In medieval times, Muslim societies were well ahead of Europe in mathematics, science and law, with Baghdad a leading centre in the tenth and eleventh centuries. Trade flourished too: Arab merchants dealt with Korea to the east and with Africa to the west. Merchants enjoyed high status, partly because the Prophet Muhammad had been one, and contracts were taken very seriously. Judges in Muslim lands were trained centuries earlier than in Christian ones; in most of Europe, a judge needed no legal training until the nineteenth century.

① 중세 무슬림 세계는 법학에서 유럽에 뒤졌다.
② 바그다드는 8~9세기에 과학의 중심지였다.
③ 무함마드는 상인을 낮게 여겼다.
④ 유럽 대부분에서는 18세기부터 판사가 법을 배워야 했다.
⑤ 아랍 상인들은 동쪽의 한국, 서쪽의 아프리카와 교역했다.

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5.4점]

Many observers credit East Asia's 'economic miracle' to Confucian culture, which supposedly prizes diligence, frugality and schooling. But which culture does not? The American political scientist Samuel Huntington uses culture to explain why South Korea and Ghana diverged. In the early 1960s the two stood at similar stages of development; in 1961 Korea was actually poorer, with a per capita income of $93 compared with Ghana's $190. Huntington admits that many factors mattered, yet insists that culture explains a great deal: Koreans, he says, prized saving, investing, diligence, education, organisation and discipline, whereas Ghanaians held other values. For the author, this is positive stereotyping—choosing only the traits that fit a flattering image.

① 유교 문화는 근면 · 근검 · 교육을 중시한다고들 한다.
② 1960년대 초 한국과 가나의 경제 발전 수준은 비슷했다.
③ 1961년 한국의 1인당 소득은 가나보다 높았다.
④ 헌팅턴은 한국과 가나의 차이에 다른 요인들도 작용했음을 인정했다.
⑤ 필자는 헌팅턴의 설명을 긍정적 고정관념의 예로 본다.

9.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6.0점]

Islam may also suit development better than other traditions. Unlike Hinduism or Confucianism, it has no caste system, ① which limits people's choice of work according to birth and thus reduces social mobility. The Hindu system is notoriously rigid, and the Confucian version, though less elaborate, was no joke either. Farmers' sons could pass the state exam and ② join the ruling class of scholar-officials, but this ③ rarely happened. Sons of craftsmen and traders, who ranked just above slaves, ④ was not even permitted to take the exam. Small wonder that even after the old order ended, Confucian countries struggled to persuade gifted youths to become engineers or businessmen, jobs respected only once development ⑤ made them well paid and influential.

①
②
③
④
⑤

10.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In the 1960s and 1970s, when Korea's development drive was just beginning, young people were unwilling to enter fields like science and engineering, (A) [because / because of] the old Confucian prejudice against practical work. The government responded by deliberately cutting places and funding for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and it let the top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s (B) [serve / to serve] far shorter terms of compulsory military service. Of course, more such graduates would have meant an army of jobless experts if no suitable work had existed, as many other developing countries discovered. To prevent this, the government pushed industrialization through public policy, (C) [creating / created] well-paid, intellectually rewarding jobs that the new graduates could take.

	(A)	(B)	(C)
①	because	serve	created
②	because of	serve	creating
③	because of	to serve	creating
④	because	to serve	creating
⑤	because of	serve	created

11.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6.0점]

Confucianism is said to promote diligence, yet Western visitors used to ① describe East Asians as lazy. In 1915 an Australian engineer invited by Japan's government to advise on productivity remarked that Japanese workers seemed ② contented and easy-going, treating time as no object; managers told him such national habits could not be ③ changed. Touring Japan and Korea in 1912, the English sociologist Beatrice Webb complained that the Japanese had an ④ admirable attitude toward leisure, and she called Koreans dirty and lazy savages. Such words came from one of the founders of Fabian socialism, so we can only ⑤ imagine what open white supremacists of that era said about Confucian peoples.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6.0점]

Other negative images of Islam also fall apart when examined closely. Many regard it as a warlike faith, a view that fundamentalists have done much to spread. This is why the word jihad, which first meant striving toward any worthy goal, is so often misread as a holy war against unbelievers. Islam does contain a strand that can be read in a militaristic way, but it equally stresses the value of _____, as a saying of the Prophet Muhammad shows: a scholar's ink is holier than a martyr's blood. In fact, the author argues, the Renaissance could not have happened if Muslims had not translated ancient Greek and Latin texts into Arabic and so preserved them, for European Christians had neglected or destroyed those writings as heathen.

① learning
② military discipline
③ commerce
④ religious ritual
⑤ obedience to rulers

13.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6.0점]

Despite that long tradition, and even though it had been colonized by a fellow Confucian country, South Korea's literacy rate was just 22% when the Japanese departed in 1945.

Japan and Korea did not originally have factory workers used to punctuality and industrial discipline. (①) Such workers were produced by deliberate measures: schools taught timekeeping and discipline, a campaign urged hard work in a so-called 'patriotic war' of national rebuilding, and labour laws permitted long hours and harsh conditions. (②) Likewise, people in Confucian countries invested heavily in education not because Confucius prized scholarship, but because post-war policies such as land reform made society more mobile and so made schooling pay. (③) Consider that Confucianism had been Korea's state ideology for centuries. (④) Around the same period, literacy stood at 53% in Buddhist Thailand, 52% in the Christian Philippines and 38% in mostly Muslim Malaysia. (⑤)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5.4점]

Acorns, the nuts of oak trees, are hardly a prized food. ① It is known that some Native Americans, notably in California, and some people in Japan ate them when better sources of carbohydrate were unaffordable or unavailable. ② Koreans, by contrast, eat a great many acorns in the form of dotori mook, a jelly the author loves with a salty, sharp soy-based sauce. ③ In 1961, South Korea's per capita income was only $93, lower than Ghana's $190. ④ Still, he admits it is no delicacy; it is the kind of snack eaten at mountain stalls after a climb or in a cheap tavern. ⑤ Fed to Ibérico pigs, however, acorns give the finest jamón a rich, nutty taste that, in the author's judgment, makes it the best ham anywhere.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Ham sits at the centre of Spanish culture. What other country could have made a film called 'Ham, Ham'—Jamón Jamón, the first film of Penelope Cruz?

(A) That struggle ended in January 1492, when the Reconquista was completed and the Muslims were driven out of the peninsula. Later that same year, a royal order expelled the Jews as well, and Portugal soon did the same.

(B) Many of these exiles took refuge in the Ottoman Empire, at that time the centre of Islam. The Turkish economist Dani Rodrik descends from one of them; his family was originally named Rodriguez, he told the author.

(C) Ham gained this importance when Christians built Spain through their wars against the Muslims, who had earlier ruled most of Iberia. Because eating pork set Christians apart from Muslims, pork came to symbolize Christian identity.

① (A) – (C) – (B)
② (B) – (A) – (C)
③ (B) – (C) – (A)
④ (C) – (A) – (B)
⑤ (C) – (B) – (A)

16.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5.4점]

Once Korea lifted its limits on mortgages and consumer loans in the late 1990s, household savings collapsed: within a few years they fell from an early-1990s peak of 22% of GDP, then the world's highest, to just 3–5%. During 2005–14 they averaged only 5% of GDP, under half the rates of supposedly free-spending Chile (10.5%) and Mexico (11.4%). Culture surely affects how people think and act, but simple stereotypes cannot capture its influence, for every culture is complex and ever-changing. Above all, policies matter far more than culture in shaping economic behaviour.

→ Korea's household savings (A) _____ once loan restrictions were lifted, suggesting that economic behaviour depends far more on (B) _____ than on culture.

① plummeted ..... policies
② soared ..... policies
③ plummeted ..... traditions
④ stabilized ..... values
⑤ soared ..... stereotypes

[서답형 1] 다음 글을 읽고 <QUIZ>의 (1)~(7)번에 해당하는 답을 <보기>에서 찾고, 그에 해당하는 알파벳 기호(A~Z)를 순서대로 나열하여 완성되는 한 단어를 쓰시오. (단, 대소문자 여부는 채점에 반영하지 않음.) [10점, 부분 점수 없음]

In 1391, angry Christian mobs forced many Spanish Jews to convert. The Spanish Inquisition, set up in 1478, then hunted for false converts. After the Jews were expelled in 1492, many found refuge in the Ottoman Empire, where Sultan Beyazit II is said to have welcomed them. Much later, Samuel Huntington claimed that culture largely explained why South Korea pulled ahead of Ghana, although in 1961 Korea's per capita income was only $93, against Ghana's $190. In 1912, the English sociologist Beatrice Webb described Koreans as lazy. When the Japanese left in 1945, Korea's literacy rate was just 22%, and during 2005–14 Korean household savings averaged a mere 5% of GDP.

<QUIZ>

(1) In what year were many Spanish Jews forced to convert?

Answer for (1): _____

(2) In what year was the Spanish Inquisition set up?

Answer for (2): _____

(3) Which sultan is said to have welcomed the Jews?

Answer for (3): _____

(4) Is it true or false that Korea's per capita income was higher than Ghana's in 1961?

Answer for (4): _____

(5) Which English sociologist described Koreans as lazy in 1912?

Answer for (5): _____

(6) What was Korea's literacy rate when the Japanese left in 1945?

Answer for (6): _____

(7) What share of GDP did Korean household savings average during 2005–14?

Answer for (7): _____

<보 기>

A. 1492	N. 22%
B. Samuel Huntington	O. 3%
C. True	P. Penelope Cruz
D. 1391	Q. 1945
E. 1478	R. 10.5%
F. 53%	S. Beyazit II
G. Dani Rodrik	T. False
H. 1912	U. 38%
I. Beatrice Webb	V. Reda Cherif
J. 39%	W. 1961
K. Muhammad	X. 1%
L. 11.4%	Y. 5%
M. 1915	Z. 52%

정답: _____

PART 4

파이널 – 손으로 복원한다

평가 2~3일 전. 눈으로 읽은 것은 시험장에서 반쯤 사라지고, 손으로 쓴 것만 남는다.

4-1. 핵심 문장 12선 –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쓰기

Part 2의 어법 포인트를 그대로 쓰는 문장들이다. 괄호 안의 단서를 활용해 쓴 뒤, 정답과 해설로 대조하고 틀린 자리에 표시한다.

01 일부 아메리카 원주민과 일부 일본인이 도토리를 먹었다고 알려져 있다. (be known to have p.p.)

02 도토리묵을 아무리 좋아해도, 그것이 결코 별미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한다. (however much + S + V / no + 명사)

03 기독교도와 무슬림을 구별 짓는 한 가지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이었다. (단수 주어 One thing + 동명사 보어)

04 개종한 유대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어야 했다. (사역 make의 수동 be made to V)

05 술탄 바예지드 2세는 유대인을 두 팔 벌려 반겼다고 한다. (be supposed to have p.p.)

06 무슬림이 그 고전들을 번역하지 않았다면 르네상스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if 생략 도치 가정법 과거완료)

07 장인과 상인의 아들들은 과거 시험을 치르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복수 주어 + were / be allowed to V)

08 우리는 그 나라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무엇이든 그 문화 탓으로 돌린다. (attribute A to B / whatever + 명사)

09 농업 이외의 실용적인 일은 업신여겨졌다. (구동사 수동 look down upon)

10 한 사회가 문화라는 원재료로 무엇을 만들어 내느냐는 상당 부분 선택의 문제다. (what절 주어 + 단수 동사)

11 나라가 너무 빨리 성장해서 소비 증가가 소득 증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so ~ that / keep pace with)

12 경제 성과를 결정하는 데 문화는 정책보다 훨씬 힘이 약하다. (비교급 강조 much + less)

4-2. 숫자 · 고유명사 복원표 — 보지 않고 채우기

서답형과 내용 일치 문항이 걸린 표다. 한 칸이라도 비면 Part 1-4로 돌아간다.

항목	답
도토리묵에 곁들이는 양념간장의 재료	
이베리코 돼지의 다른 이름 / 그 뜻	
최상품 하몽의 이름 / bellota의 뜻	
bellota의 어원(27쪽 각주 i) / 알려 준 사람	
'Ham, Ham'의 원제 / 데뷔한 배우	
강제 개종이 일어난 해	
종교재판소가 세워진 해 / 거짓 개종자를 부른 말	
레콩키스타가 완성된 때	
오스만 제국으로 간 유대인의 후손인 경제학자 / 원래 성	
유대인을 반겼다고 하는 술탄	
jihad의 본뜻	
무슬림 세계의 과학 중심지 / 시기	
유럽에서 판사가 법을 배우지 않아도 되던 때	
이슬람과 경제 발전이 함께 갈 수 있다는 두 예	
1961년 1인당 소득 한국 / 가나	

항목	답
유교 문화로 경제 기적을 설명한 정치학자 / 그의 책	
1915년 일본 공장을 둘러본 사람 / 1912년 일본과 한국을 둘러본 사람	
1945년 한국의 문해율 / 타이 · 필리핀 · 말레이시아	
한국 · 중국의 가계 저축률 정점	
1960년 한국의 총저축률	
2005~14년 평균 한국 가계 저축률 / 칠레 · 멕시코	

4-3. 통합 사고 문제 – 서론과 1장을 잇는 자리

문제

서론에서 저자는 정부 주도 산업화 시기의 한국 정부가 수출로 번 달러를 모두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계와 원자재를 사는 데 쓰려고 여가 목적의 여권을 내주지 않았다고 쓰고(10쪽 ¶6), 더 산업화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일과 삶이 시계에 맞추어 짜이기 때문에 농업 사회 사람들보다 시간을 더 잘 지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16쪽 ¶2). 1장에서 저자는 일본과 한국에 시간을 지키는 산업 노동력이 없었으나 구체적인 행동으로 그런 노동력을 만들어 냈다고 하고(25쪽 ¶3), 한국 정부가 생산자에게 대출을 몰아주려고 주택 담보 대출과 소비자 대출을 엄격히 제한해 사람들이 먼저 저축해야 했다고 썼다(26쪽 ¶3). 이를 바탕으로, 저자가 개인의 경제 행동과 나라의 경제 성과를 정하는 데 문화보다 훨씬 힘이 세다고 본 것을 영어 한 단어로 쓰고, 그 근거를 서론과 1장에서 하나씩 들어 영어 두 문장으로 쓰시오. (각 문장에 서론 또는 1장의 어휘를 하나 이상 포함할 것)

문화보다 힘이 센 것: Most importantly, culture is much less powerful than _____ in determining individual economic behaviour and national economic performance.

근거 1

근거 2



BARUN

바른 가르침, 내일을 바꾸는 교육

We exist to change tomorrow for every student through right teaching.

바른에듀케이션 · 인천 남동구 논현동 · 010-9968-1387